

큐라클, 1조 규모 기술수출... K-바이오 턴어라운드 본격화

메멘토 메디슨에 'MT-103' 수출 추가 적응증 개발 가능성도 포함 기술 반환 아픔 딛고 체질 개선

한때 기술 반환의 쓴맛을 보며 기업 가치 급락을 겪었던 큐라클이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바탕으로 K바이오 '반등' 기반을 다진다. 후기 임상 역량, 상업화 추진 전략 등에 대한 시장 의구심을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확보해 R&D 동력을 유지하는 '실전형 바이오'로 체질을 개선하는 모습이다.

1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큐라클은 항체 전문기업 맵틱스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망막질환 치료 후보물질 'MT-103'을 미국 바이오 테크 메멘토 메디슨에 최대 10억7775만 달러(약 1조5636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했다.

계약 내용은 개발 및 허가 마일스톤 8225만 달러, 상업화 마일스톤 9억8750만 달러에 대한 권리다. 계약 대상 지역은 글로벌이고 망막질환 외 추가 적응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증 개발 가능성도 포함한다. 이번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큐라클과 맵틱스가 50:50으로 배분해 수령하며 선급금은 800만 달러(약 116억원)다.

해당 선급금은 전체 계약의 약 0.7% 수준이다. 다만 메멘토 메디슨은 글로벌 벤처캐피탈(VC) 및 투자사가 특정 자산의 빠른 상업화를 목표로 설립한 뉴코(NewCo) 형태 기업이다. 뉴코의

신약개발 추진 방식은 전문 인력 구성, 임상 중심 의사결정, 소수 파이프라인에 대한 높은 집중도와 효율성 등이 특징이다.

큐라클은 빅파마 대신 뉴코 기반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신약개발 과정에서 실질적인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큐라클은 과거 기술 반환 이슈를 겪

은 바 있다. 2024년 5월 프랑스 페아오 폰노베이션으로부터 당뇨병성 황반부종 및 습성 황반변성 치료 후보물질 '리바스테라트(CU06)'에 대한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을 통보받았다. 기술 반환 이유는 연구개발 우선 순위에서 단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후 큐라클은 자체적으로 후속 전략을 마련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미팅을 진행하는 등 약물 경쟁력을 지속 입증해 왔다.

또 리바스테라트는 이미 2024년 4월 미국 임상2a상을 완료했다. 해당 임상의 시력 개선 지표에서 경구용 치료제로는 세계 최초로 효과를 보였다. 현재는 임상2b상시험계획(IND)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생체흡수율을 개선한 신규 제형도 함께 개발한다.

'MT-103' 역시 약물 우수성이 확인됐다. 큐라클은 지난 3~7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안과학회 'ARVO 2026'에서 MT-103 전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MT-103은 Tie2 활성화 항체와 VE

GF 항체를 결합한 이중 항체다. 혈관 안정화를 유도하는 수용체인 Tie2를 활성화해 혈관을 강화하고, 혈관내피성장인자인 VEGF를 억제해 비정상적인 신생혈관 생성을 막는 기전을 갖췄다.

큐라클은 이러한 R&D 역량에 더해, 수익성 개선을 통한 재무 불안정성 해소에도 나섰다. 지난 2월 원료의약품(API) 전문기업 대성팜텍을 흡수합병했다. 큐라클은 대성팜텍을 통해 연간 30억원 이상의 매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가적인 캐시카우로 기술특례상장기업의 매출 요건 부담을 덜어낸다는 복안이다.

유재현 큐라클 대표는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자들이 MT-103 개발에 집중 투자해 이들의 자본력이 개발 및 상업화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낼 것으로 전망한다"며 "신약개발의 전 주기적 역량을 증명하고 마일스톤 유입을 극대화해 큐라클이 K바이오 대표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글로벌 투자 몰린 GC셀, AB-101 임상 추진

아티바, 보통주·선납 워런트 발행 약 3억달러 마련... 상업화 속도

지씨셀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핵심 파이프라인을 후기 단계 임상으로 진입시키며 'K세포치료제' 상업화에 속도를 낸다.

지씨셀은 미국 관계사 아티바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자기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AB-101'을 개발하기 위한 운영자금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아티바는 보통주 및 선납 워런트 발행을 통해 약 3억 달러(한화 약 4120억원)를 마련했다. 특히 선납 워런트는 주식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향후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번 공모에는 블랙스톤 등 글로벌

투자 기관이 대거 참여했고 원천기술 파트너사인 GC셀과 GC녹십자홀딩스도 직접 투자에 나서며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투자 핵심은 GC셀이 개발한 원천기술 기반의 동종 유래 NK 세포치료제 'AB-101'이다.

GC셀은 세포유전자 치료제 영역에서 고부가가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실제로 NK 세포치료제는 환자 본인의 세포를 배양하는 CAR-T 치료제와 달리 건강한 기증자의 세포를 활용한 기성품 형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 상업화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GC셀에 따르면, 'AB-101'의 경우 현재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을 적응증으로 한 임상 2a상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기록했다.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를 최소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해당 환자군 중 71%가 '관절염 증상 개선 50%'에 도달했다.

고감도 분석에서는 평가 가능한 환자 28명 전체(100%)가 B세포 완전 고갈을 보였다. 자가면역질환은 체내 비정상적인 B세포가 자기 면역계를 공격해 발생하는데 AB-101은 이를 완벽에 가깝게 제거함으로써 질환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씨셀과 아티바는 이번 자금을 AB-101 임상 3상에 투입한다. 올해 하반기 임상 3상 환자 투여를 시작해 오는 2028년 주요 데이터 도출, 202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 신청 등을 추진한다. /이청하 기자

인벤티지랩, 경구용 비만치료제 특허 등록

기술 차별성·권리 범위 구체화

인벤티지랩이 비만·당뇨 치료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를 활용한 나노입자 제형 및 제조 방법에 대한 국내 특허의 최종 등록결정을 받았다. 11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세마글루타이드 또는 그 염을 나노입자 내부에 안정적으로 담지하여 생체이용률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권리 범위를 정교화하고 기술적 차별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최종 등록에 성공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편의성을 극대화한 경구용 제형 개발 경쟁이 최근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허가된 약물로는 노보 노디스크의 '리벨서스정'(세마글루타이드 성분)과 일라이 릴리의 '파운드요'(오포글리프론 성분) 등이 있으나, 펩타이드를 이용한 경구용

비만약인 리벨서스정의 경우 생체이용률이 1% 수준에 불과해 약효 구현과 투여량 설정에 큰 한계가 있었다.

인벤티지랩은 자사가 보유한 고도화된 펩타이드 경구화 플랫폼인 'IVL-PePOFluidicTM'을 통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이번 특허의 기존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에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투여 후 24시간 기준, 경구 대조약의 체내 노출도를 약 14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나노입자 기술 외에도 경구 제형화의 최적화를 위해 다양한 고분자 펩타이드 경구제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을 전방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제제에 국한되지 않고, 약물의 특성에 최적화된 전달 시스템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플랫폼 구축 전략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스타벅스, 이른 더위에 '자망코' 조기 등판

(자몽 망고 코코 프라푸치노)

여름 대표 음료... 출시 10일 이상 당겨

스타벅스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초여름 무더위에 대응해 여름 시즌 주력 제품의 출시 일정을 대폭 앞당기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11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여름 시즌 대표 음료인 '자몽 망고 코코 프라푸치노(이하 자망코)'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출시는 최근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며 5월 중순부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 전망에 따른 전략적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출시일인 5월 22일과 비교하면 열흘 이상(11일) 등판 시점이 빨라졌다.

'자망코'는 2024년 첫 출시 이후 망고·자몽의 청량감과 코코넛의 부드러운



자몽 망고 코코 프라푸치노 /스타벅스 코리아

조화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온 제품이다. 카페인이 없는 '트로피컬' 콘셉트를 내세워 남녀노소 불문하고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난해 기준 누적 판매량 670만 잔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스타벅스의 '여름 대목' 효과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홈플러스 생리대 8종 누적 판매량 15만팩

홈플러스가 선보인 초저가 생리대가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5만 팩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말 개당 98.6원(중형 기준)의 '샬리의법칙 니즈윈 생리대' 4종을 출시한 데 이어, 3월에는 개당 98.3원 수준의 '잇츠미퓨어 생리대' 4종을 추가로 선보였다. 현재 판매 중인 국산 초저가 생리대 8종의 누적 판매량은 지난 4월 말 기준 15만 팩을 돌파했다.

홈플러스는 위생용품 가격 상승이 판매 증가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생리대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100.49에서 올해 119.31로 상승하며 5년 새 약 19% 올랐다. /김서현 기자 seoh@

تون업 기능 강화... 라네즈 선크림 리뉴얼

수분감·발림성은 유지

아모레퍼시픽이 글로벌 뷰티 브랜드 라네즈에서 자외선 차단에 톤업,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까지 더한 고기능성 제품을 선보인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선보인 라네즈 워터뱅크 선크림을 재단장한 '워터뱅크 블루 톤업 선크림(사진)'을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제품의 강점인 수분감과 산뜻한 발림성은 유지하면서 피부 톤을 보정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블루 색상 제형을 적용해 피부의 붉은기와 노란기를 중화해 보다 청명한 안색을 연출해 준다. /이청하 기자



또 메이크업 단계에서 사용해 피부 바탕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 메이크업 밀착력을 높이는 데 활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블루 히알루론산, 병풀 PDRN 등을

처방해 피부 진정, 피부 장벽 개선 등의 효과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라네즈 관계자는 "자외선 차단을 기본으로 자연스러우면서도 맑은 피부 표현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